



중·북·일 잠수함

북한이 잠수함에서 모의탄도탄 사출시험에 성공하면서 한반도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척을 운용 중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세력권이라고 여기는 지역에 미국 등 다른 강대국의 군사력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구상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방위개념에 따라 6개 잠수함대 22척으로 늘려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정박중인 중국 핵잠수함, 북한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 일본 잠수함(2400t급) 사치시오. /연합뉴스

“북, 2~3년내 SLBM 탑재 신포급 잠수함 전력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군 소식통 “발사 모의탄 150m 비행한 듯”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무력화 없을 것”

북한은 최소한 2~3년내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신포급(2000t급) 신행 잠수함을 전력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11일 “북한은 이번에 잠수함에서 모의탄을 사출하는 시험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르면 2~3년내에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을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SLBM 자체를 완전히 개발해 전력화하는 데는 4~5년가량 걸릴 것

으로 분석됐다. 소식통은 “(SLBM 전력화에) 탄두를 만들고 소형화하며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갖춰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4~5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이번에 사출시험에 동원한 신포급 잠수함 외에는 동급의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포급 잠수함은 길이(67m)가 짧아 SLBM 장착 부분이 함교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으며 SLBM은 1발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된 모의탄은 약 150m를 비

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SLBM을 오래전부터 개발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2012년 5월에 구체적으로 포착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수중 사출 시험을 과거에도 이반과 유사한 형태로 몇 차례 실시했으며 이번에 김정일이 참관한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김정일의 러시아 전승행사 불참으로 세계의 이목이 쏠린 시점에서 공개함으로써 대남, 대미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신문에 공개한 사출 시험 사진은 조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사출 시험으로 안보 우려가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SLBM 개발로 우리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연합 정보·정찰·감시(ISR) 자산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정찰 자산, 순항 미사일인 ‘현무-3’, 정밀유도무기인 슬램(SLAM)-ER 등을 꼽으며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포착해 발사가 임박했거나 위협을 앞둔 상황에서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 사출 시험에서 공개한) 잠수함은 앞으로 중요 표적으로 한미 연합 정보 자산에 의해 집중적으로 감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탐지거리 약 600km의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

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SLBM 사출 시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은 SLBM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SLBM 개발 초기 단계”라며 “북한은 수중 사출시험을 한 잠수함도 현재 개발 중이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잠수함이 북한의 해군기지 어디에 있는지 모두 추측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현무 미사일로 정밀 타격 가능하고 정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갖고 있다. 작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북 핵 보유 막을 곳 중국뿐” 美 워싱턴포스트 지적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이웃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끊임없는 시도를 중단시킬 수단을 가진 것은 오직 중국뿐”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중국의 군사·경제적 팽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염려를 전하면서 “중국의 떠오르는 힘이 도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웃나라인 북한의 핵무장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지난 2월 중국과 미국의 핵전문가들의 비공개 회동에서 나온 ‘북한이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국 측 주장과 ‘북한이 5년 내로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보고서 언급하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러 전승행사 불참은 핵·미사일 개발 이전 때문”

일본 지지통신 보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9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불참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 있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북·러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가 김 제1위원장을 초청했을 때 러시아 방문의 전제 조건으로 핵개발 중단, 탄도 미사일 실

험 및 수출 금지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결국, 북한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며 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또 조울 과정에서 북측은 러시아에 무상 원조 제공을 요구했지만 러시아측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지지는 보도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승전 기념식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냈다.

김격식 北 전 인민무력부장 사망

천안함 폭침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격식(77) 북한 육군 대장이 지난 10일 질병으로 사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격식 육군 대장이 지난 10일 0시 30분 ‘암성중독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김격식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을 담당하는 북한군 4군단장으로 활동하며 김영철 군정참총장과 함께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격식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인민무력부장과 군 총참모장 등 군부 최고 요직을 모두 거처며 출세 가도를 달렸다. 특히 김정일 체제부터 오랫동안 야전 사령관으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김정일 체제가 들어선 이후 김정일 시절의 원로

군인들이 대거 한직으로 물러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세대교체의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그는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으며 2013년 5월 군 총참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같은해 9월 리영길 현 총참모장에게 자리를 내주고 다시 군단장으로 물러났다. 그는 일선에서 물러나 이후에도 군단장에 임명돼 지난해 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항공육전병 야간훈련을 참관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핵심 군부인물로 활약했다. 지난 1957년 19세에 군에 입대한 김격식은 1980년대 말부터 군단장으로 일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 등도 받았다. /연합뉴스

무늬만 회의

일 아베 내각 국무회의 13분 그쳐... 논쟁 부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각의(국무회의)와 각료 간담회의 회의 시간이 평균 13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총리 관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회의록 내용을 토대로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105차례 개최된 각의 및 각료 간담회 소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105차례 회의 중 35번은 10분도 걸리지 않았고, 가장 길었던 사례는 지난 2월10일의 42분이었다. 이마저도 총리의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문 낭독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매주 2차례 열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각의 소요 시간은 영국, 독일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마이니치에 의하면, 영국과 독일의 경우 주 1회 열리는 각의가 보통 1시간 반 가량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는 각의와 각료 간담회의 평균 소요시간이 13분에 그친 것은 각의 등이 유명무실해진 실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실적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지난해 9월, 각의와 각료 간담회 발언은 원칙상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라고 각료들에게 요구한 것이 회의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강 이상’ 카터 전 대통령 남미 출장 중 조기 귀국

지미 카터(90)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건강 이상으로 남미의 가이아나 출장 일정을 도중에 중단한 채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고 카터 센터가 밝혔다. 카터 센터는 성명에서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 등은 공개하지 않은 채 ‘카터 전 대통령이 몸이 좋지 않아 현재 가이아나를 떠나 고향인 조지아 주 애틀랜타로 돌아오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11일 치러질 가이아나 대선 및 총선 참관 임무를 위해 카터 센터 직원들과 함께 가이아나에 머물렀다. 이번 가이아나 총선 참관은 비영리 재단인 카터 센터의 100번째 임무로, 카터 센터 직원 49명은 카터 전 대통령의 귀국과 관계없이 현지에서 남아 선거 전 과정을 모니터링 예정이다. 1981년 퇴임한 카터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존경받는 원로 정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90세의 고령이 무색할만큼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2년에는 국제분쟁의 중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200억 원의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담보 비율 : 최대 70%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나대지 원룸	최저 연 3.8%~	(연금수급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	---------------------------------------	---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에게 3건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건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7.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8.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가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철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